

ON

조선 선비문화

Joseon Seonbi Culture ON
Jeonju National Museum Magazine
Vol 2020. 01

새롭게 문을 연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꼬마선비 납신다'

국립전주박물관 3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시 '한국의 서원, 전주에 오다'



국립전주박물관
Jeonju National Museum



ON

조선선비문화

Joseon Seonbi Culture ON
Jeonju National Museum Magazine
Vol 2020. 01



표지 설명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이 전면 개편을 마치고 2019년 12월 21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2014년 문화체험관을 어린이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꾼 이래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조선 선비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박물관 브랜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어린이박물관도 선비문화 전문 어린이박물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국립전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은 앞으로 선비문화 전문 어린이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체험과 놀이를 통해 선비의 정신과 문화를 어린이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주와 전북도민 그리고 전주를 찾는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차

- 03 **박물관장 메시지**
미래 선비를 양성하는 박물관 서당 | 천진기
- 04 **새롭게 문을 연 조선 선비문화 어린이박물관**
꼬마선비 납신다 - 어린이박물관, 새롭게 태어나다 | 서유리
- 06 **국립전주박물관 개관 30주년 특별전**
국립전주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시 | 장상기
한국의 서원, 전주에 오다 | 이기현
- 10 **선비의 향기**
호남의 서원 길을 따라 걷는다 | 정대영
선비의 일상과 기호 - 선비들이 사랑한 문방구 | 김현정
- 14 **조선 선비문화 연구**
꽃꽂한 자태와 강단있는 선비 -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 민길홍
벽하磬下 조주승趙周昇 | 박철상
아름다운 농업유산, 설보雪沱 이야기 | 김철배
- 22 **조선 선비문화 박물관 소식**
새롭게 여는 국립전주박물관 선비문화실 | 정대영
“검손, 배려, 나눔”을 배우는 박물관 서당 | 이기현
선비문화아카데미 심화과정 | 정대영
국립전주박물관의 발전적 업무협약 체결
국립전주박물관의 신명나는 문화행사 | 김성용

박물관장 메시지

미래 선비를 양성하는 박물관 서당

국립전주박물관장 천진기

박물관에 견학을 갔다가 공룡화석 밑에서 잠이 들어 다시 찾으러 갔던 아이가 바로 미국의 천재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였다고 합니다. 스필버그는 어린 시절 박물관에 드나들면서 무한한 탐구심과 상상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 키운 풍부하고 기발한 스필버그의 상상력은 현실을 뛰어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쥬라기 공원>의 공룡으로, <인디아나존스>의 고고학 등으로 재현되어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한 몸에 받던 공룡의 존재가, 신비한 피라미드 속의 유물과 상황이 영화 속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물론 엄청난 경제적 이익도 창출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오래된 물건과 고루한 생각을 가리켜 “박물관으로 보내라”고 합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로 평생을 일해 온 저로서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어령 진 문화부장은 “박물관은 죽은 물건을 가져다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문화의 자궁’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면 박물관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박물관에 담겨 있는 선조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유물 속에는 자연, 역사, 생활, 문화, 경제, 과학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박물관과 친해야 합니다. 박물관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보통 고고학자, 역사학자, 민속학자 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물관을 좋아하는 어린 관람객 속에서 스필버그처럼 천재적인 영화제작자, 세계적인 예술가, 창조적 디자이너, 인류를 책임질 과학자도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은 자연, 역사와 문화, 과학의 과거·현재·미래를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미래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어릴 때부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많은 것을 경험하고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물관이 바로 그 상상력의 주춧돌이 되는 곳입니다. 몇 천 년 전의 조상들과 만날 수 있고, 지금도 흉내 낼 수 없는 찬란한 문화유산이 가득합니다. 마음껏 역사 속으로 유영하며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의 대화는 미래에 대한 상상입니다. 박물관은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박물관에서 경험과 추억은 틀림없이 풍성한 미래를 꿈꾸게 만들 것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새해에는 박물관 서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선 선비의 태교, 밥상머리교육, 어린이 고전 교실, 청소년 충·효·예 체험교실, 일반을 위한 선비아가데미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물관 서당은 검손과 배려, 나눔을 실천하는 미래 선비를 키워낼 박물관 교육입니다. 박물관 서당은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데 있습니다. 글 공부 이전에 예절과 바른 생활습관을 가르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박물관 서당을 통해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됨(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2019년 말에 ‘꼬마선비 납신다’라는 주제의 어린이박물관을 개편했습니다. 체험과 놀이를 통해 선비 정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161평에 조선의 선비문화에 대한 상설전시를 국내 국립박물관으로는 처음으로 유일하게 조선의 선비문화 상설 전시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9개 서원 현판을 가져와 ‘한국의 서원, 전주에 오다’라는 주제로 특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젠 국립전주박물관 ‘조선의 선비문화’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본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새롭게 태어나다 꼬마선비 납신다

서유리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전주박물관은 조선 선비문화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박물관 개선사업을 실시하였다. 기존 왕실의 문화를 다루었던 ‘나는 왕이로소이다’에서 조선 선비문화를 다룬 ‘꼬마선비 납신다’로 탈바꿈하였다. 노후화된 어린이박물관 시설을 교체하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하여 2019년 12월 21일 재개관을 하였다.

어린이박물관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선비이자 재미있는 일화를 남겼던 ‘오성과 한음’이 주인공이 되어 어린이들을 선비의 세계로 이끈다. 관람객들은 꼬마선비가 되어 전시를 체험하게 된다.

1실은 ‘선비의 살이’를 주제로 꾸며졌다. 오성, 한음과 함께 선비가 되어 선비의 일생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들이 남긴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시 초반에는 서당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밥상머리 교육, 다양한 전통놀이를 해본다. 중반에는 문과와 무과 과거시험을 보고 장원에 급제하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부분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올바른 선비의 역할을 배우고 참된 나만의 선비상을 찾아본다. 이렇게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전시에 참여하면 조선시대 선비의 삶과 덕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1실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2실은 ‘선비의 놀이’가 주제로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공간이다. 오성, 한음과 함께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다양한 놀이시설을 체험한다. 편안하게 놀고 쉴 수 있는 일종의 실내 놀이터로 조성하였으며, 발달과정에 필요한 신체놀이와 오감놀이를 할 수 있다. 소근육을 이용하는 아날로그 체험물과 눈길을 끄는 디지털 체험물이 어우러져 영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증대시켰다. 어린이박물관의 7인 이상 관람은 누리집에서 사전예약 할 수 있다.

더불어 어린이박물관 입구 잔디밭, 로비 등에 편의시

설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더욱 쾌적한 관람공간으로 변신하였다.

새로 태어난 어린이박물관은 앞으로 선비문화 전문 어린이박물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며 체험과 놀이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선비의 정신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조선 선비문화 브랜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어린이박물관뿐만 아니라 2020년 하반기에 새롭게 문을 여는 선비문화실, 개최예정인 다양한 특별전시도 기대된다.



국립전주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한국의 서원 전주에 오다', '견훤과 후백제'

정상기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안향 초상 安珦肖像 | 고려시대 | 비단에 색
37.0×29.0cm | 국보 제111호 | 소수서원 소장

국립전주박물관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를 맞아 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I 과 II를 준비 중에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1990년 10월 26일 개관하여 2020년이면 개관 30주년이 된다. 먼저 2020년 6월 23일에서 8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전시가 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I 인 '한국의 서원, 전주에 오다'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방 교육기관인 서원을 통해 조선시대 지식인으로써 시대를 이끈 지도자들인 이들을 조명하여 이 시대의 사상적 근간이었던 선비 정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계획이다.

주요 전시품들은 2019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수서원 등 9개 서원의 주요 지정문화재 및 현판, 관련 유물 등 100여점이다.

전시는 총 5부로 구성하여 도입부에서는 한국 서원의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할 것이며, 1부에서는 '서원에서 선비 정신을 읽다'라는 소주제로 조선시대 서원의 역할과 기능, 서원의 교육과 사회,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줄 예정이다. 1부의 주요 유물은 <퇴계선생집>과 보물 제586호인 <이언적수고본李彦迪手稿本> 등이 전시된다. 2부는 '서원, 선비의 마음을 채우는 공간'이라는 소주제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9개 서원을 통해 한국 서원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보여줄 예정인데, 중요 전시 유물로는 9개 서원 소장 <현판>, 국보 제111호인 <안향 초상>, 국보 제239호인 <송시열 초상>, 보물 제485호인 <문선왕전좌도>와 함께 이항 선생 사 용 문방구류 16종도 전시될 예정이다.

3부는 '서원의 현대적 의미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으로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정신적 원동력의 일부가 조선시대 선비정신이었으며, 그 사상적 기반이 조선시대 서원이었다는 것을 구체화하여 보여줄 계획이며, 마지막 나가는 부분은 '선비정신과 오늘의 우리를 되돌아보는 공간'으로 전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국의 서원 전주에 오다' 특별전은 9개 서원의 유네스코 등재 기념일인 7월 10일에 앞서 개막하는데, 전시는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9개의 등재서원(소수·남계·옥산·도산·필암·도동·병산·무성·돈암서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편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특별전시와 함께 국제학술심포지엄 및 콜로키움을 전시



도동서원 '중정당'의 일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완주 봉림사지 삼존불 完州 鳳林寺址 三尊佛 | 후백제
높이 138.0cm(왼쪽) | 전북대학교 박물관

기간중에 개최하여 서원과 선비 정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심화시킬 방침이다.

국립전주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II '견훤과 후백제'는 고도古都 전주의 역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삼국시대 견훤이라는 인물과 후백제를 통해 약 1,100년 전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았던 이들의 후삼국을 통일하기 위한 집념과 그들이 남긴 문화적 양상을 종합적으로 조명하여 1,100년전 전주를 근거로 활동한 견훤과 후백제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전시는 9월 22일에서 12월 6일까지 진행되는데, 총 3부로 계획되었다.

1부는 '견훤의 탄생과 그 꿈의 시작'이라는 소주제로 견훤의 출생에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던 시기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견훤이 이때 주로 활동한 상주, 순천, 광주 지역에서 남긴 역사와 문화를 집중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2부는 '견훤, 큰 뜻을 세우다'라는 소주제로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수도로 전주를 선택하면서 전라북도 지역에 남긴 문화재를 전시하게 된다. 3부는 '신화가 된 견훤'으로 후백제가 삼국 통일을 위해 고려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기의 역사적 산물과 후백제가 고려에 의해 폐망하고 견훤이 죽음에 이르는 시기를 보여주는데 이 시기는 주로 전주, 상주, 논산지역에 남아있는 유물과 설화 등으로 구성된다. 익산 미륵사지와 논산

견훤묘와 개태사, 상주와 문경에 남아있는 불교조각, 완주 봉림사지 석조유물 등을 통해 후백제와 견훤이 꿈꾸었던 삼국 통일의 꿈과 그들이 남긴 문화유산을 통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후백제의 진정한 의미를 음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국립전주박물관과 견훤의 탄생지인 상주시,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시, 견훤의 무덤이 있는 논산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견훤과 연관된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더욱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 전시 예정 유물들로는 전북대학교 박물관 소장 <봉림사지 삼존석불>과 함께 군산 발산초등학교에 소장된 보물 제234호 <봉림사지 출토 석등>, 보물 제276호 <봉림사지 출토 5층 석탑> 등과 함께 전주 동고산성 출토 <전주성소 州城 명 기와>,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 출토 청자류 등이 전시될 계획이다. 이 전시에 맞춰 후백제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 견훤관련 뮤지컬 공연, 후백제 관련 전통의상 패션쇼와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2020년 개관 3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한국의 서원 전주에 오다'와 '견훤과 후백제' 특별전을 통해 국립전주박물관의 브랜드인 선비문화를 널리 알릴뿐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이의 확산을 통해 국립박물관이 지역 문화 창달에 중추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국립전주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 특별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한국의 서원, 전주에 오다>

일시 | 2020.6.23.(화) ~ 8.30.(일)

장소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공동주최 | 국립전주박물관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이기현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가르치고 키우는 일 어떻게 할까. 아름다운 자취 옛 현인을 따르리.

- 이준, 「퇴계의 취한대 시에 차운하다 次退溪翠寒臺韻」

“欲知果育功何自 芳躅從今泝往賢”



돈암서원 장판각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2019년 7월 10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의 서원’은 영주 소수서원紹修書院, 함양 남계서원藍溪書院, 경주 옥산서원玉山書院, 안동 도산서원陶山書院,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 달성 도동서원道東書院, 안동 병산서원屏山書院,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 논산 돈암서원遯巖書院 총 9개 서원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서원은 성리학의 이념으로 설립된 조선시대 사립 교육기관으로 선비의 학문과 도덕을 보여주며, 지역문화의 역사성과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향촌 자치 기구의 중심이었던 서원에는 역사, 교육, 건축, 기록, 인물 등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출판, 문화예술, 정치 토론 등 복합적인 문화사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전주박물관과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는 공동으로 9개 서원의 주요 지정문화재 및 각 서원의 정신을 담은 현판懸板을 한 자리에 모아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우수성을 조명하는 전시를 준비한다.

우러르고 사모하며 모여드는 저 인재들,
학문 닦는 것이 출세를 위함이 아니라네.
고인古人 볼 수 없어도 그 마음 상상되니,
차고 맑은 저 연못에 휘영청 밝은 달빛.
이항, 「백운동서원 생도들에게 白雲洞書院示諸生」
“景仰自多來俊碩 藏修非爲慕鵷騰
古人不見心猶見 月照方塘冷欲氷”

순수하게 학문을 공부하고 선현先賢의 높은 뜻을 따르고자 모였던 선비들의 힘으로, 한국의 서원은 교육으로 성리학 가치에 부합하는 지식인을 양성하고, 지역의 대표 유학자를 스승으로 삼아 제향祭享을 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공론公論을 만들어갔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9개의 서원은 성리학의 범주 안에서 각 지역에서 상황에



옥산서원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소수서원 취한대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맞게 저마다의 특색을 발전시키고 보존하였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특성이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로 인정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강학講學, 제향祭享, 교유交遊와 유식遊息이라는 서원의 기본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유네스코 등재 9개 서원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서원의 효시 소수서원, 경남 의령의 중심 남계서원, 서원 교육의 현장 옥산서원, 조선 성리학의 기틀을 세운 도산서원, 호남 유림의 본산 필암서원, 실천 윤리를 강조한 도동서원, 자연과 서원의 양상을 병산서원, 교육에서 사회적 역할로 나아간 무성서원, 예학 연구의 중심지 돈암서원의 역할과 가치를 현재 우리의 삶과 연결하여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옛 선비들이 호연지기를 길렀던 소수서원의 취한대翠寒臺처럼 이번 전시가 자연과 인간의 조화,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소통, 나눔과 배려를 말하는 선비들의 숨결을 느끼며 숨 가쁘게 진행되는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고 쉬어가는 쉼터가 되길 바란다.

호남의 서원 길을 따라 걷는다

정대영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조선시대 선비문화를 주제로 박물관의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옛 시대에 활동한 실천하는 지식인을 의미한다. 양반이나 관리도 선비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들 모두가 선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선비의 큰 특징은 자기수양과 지식의 실천을 추구하는 점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선비가 등장하였다. 그러한 선비의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학문적 깊이를 더해

주었던 장소가 바로 서원書院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원은 지방에서 뛰어난 선비를 중심으로 학문을 수양 하였던 교육기관이었다. 향교가 정부에서 공적으로 운영하였던 반면에 서원은 학자와 문인들에 의해 사적으로 운영되어 현대의 사립대학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한국의 서원은 유네스코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7월에 9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국한되는 특수성이 아닌 전세계에 공감을 줄 수 있는 보편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한국 서원이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였던 것이다. 서원은 조선시대 당시 1,000여 개에 달 했다고 한다. 이렇게 지역별로 다양하게 존재하였던 서원을 흥선대원군의 명령에 의해 47개로 축소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47개의 서원 가운데서도 현재까지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9개 서원이 이번에 등재가 된 것이다.

한국의 서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서원이라고 한다면 퇴계 이황 선생이 서당으로 시작하여 이후 서원으로 건립된 도산서원이라 할 것이다. 퇴계선생은 당시 한양에서 지내던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도산서원까지 걸어서 귀향을 하게 되었다. 이후 학문에 정진하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이자 선비의 표상이 되었던 것이다. 2019년은 퇴계 선생이 귀향을 한지 4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따라 도산서원을 비롯하여 뜻있는 사람들이 합심하여 귀향길을 걸어서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다.

단순히 옛 선비가 지나쳐간 길을 걷는 것으로 끝내

는 행사가 아닌 10여 일 간의 걸음과 함께 매일 방문하는 지역에서 학술토론 및 퇴계선생의 유적을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이 진행되었다. 필자 역시 이번 행사 가운데 죽령竹嶺을 넘는 1일 코스에 참석하여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길 위에서 퇴계 이황 선생의 고귀한 뜻을 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퇴계선생의 마지막 귀향길 걷기행사가 성공리에 진행되면서 전라도에 있는 서원에서도 이와 같이 서원을 따라 걸으며 선비의 뜻을 살피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첫 걸음으로 전북에 소재한 유네스코 등재 서원인 무성서원과 일대를 걸으면서 서원과 역사탐방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2020년에 추진하려 하는 호남의 서원 걷기 행사는 서원과 선비문화 걷기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읍의 무성서원 뿐만 아니라 걷기를 통해 전북의 주요 선비문화 명소를 연결하는 선비의 길은 책이나 박물관의 전시를 통해 이해하는 지식과는 다르게 몸으로 체화하는 체험학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전남에는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 선생을 배향하고 있는 장성 필암서원筆巖書院이 있다. 하지만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는 서원 걷기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전주에서 장성까지 걷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지도상에서 80km 이내로 3박 4일 내외의 일정을 정하여 걷기를 추진하는 코스를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걷기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인솔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인원은 50명 내의 회원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국립전주박물관회가 주최가 되어 박물관 및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회원들은 국립전주박물관을 시작으로 김제에 있는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1841~1910)선생의 생가에 들러 학예일치의 경지를 보여주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비인 이정직 선생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정읍의 무성서원武城書院이다.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857~?)을 비롯하여 정극인丁克仁(1401~1481), 신잠申潛(1491~1554) 등의 선생을 배향한 이 서원은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유서 깊은 서원으로 신라에서 고려, 조선,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간에 대한 산증인이라 할 것이다. 이후 순창으로 걸음을 옮기면 하서 김인후 선생이 건립한 교육기관인 훈몽재訓蒙齋를 만나게 된다. 김인후 선생은 성리학과 시서에 뛰어난 학자이자 관료였으며 배향은 전남의 필암서원에 되어 있으나 제자들과의 교육은 순창에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주요 유적을 비롯하여 그 사이사이에 다양한 역사 유적과 토론, 지역의 맛집을 찾는 기쁨과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감상의 시간까지, 서원 걷기 행사는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문화행사라 할 것이다. 이 엄동嚴冬의 시간이 하루 빨리 지나가 꽃이 피고 새들이 다시금 행복을 노래하는 시간이 될 그날을 기다려 본다. 그리하여 여러 회원들과 오솔길을 걸으며 선비가 되는 체험을 해보는 경험은 생각만 해도 마음을 설레게 한다. 선비란 고리타분하거나 어려운 학자가 아니다. 나눔, 배려, 섬김과 공부한 것을 사회에 실천할 줄 알았던 이라면 선비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우리 모두 2020년에는 마음이 따스한 선비가 되어 보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선비의 일상과 기호

선비들이 사랑한 문방구

김현정 |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

선비란

선비란 한두 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유교적 교양을 체현한 독서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말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신홍사대부가 등장하였고, 조선의 건국 후 유교가 점차 심화 확대되면서 16세기부터 조선의 독특한 선비문화가 뿌리내렸다. 그 문화의 근간에는 절개, 의리, 염치, 검소와 같은 가치로 주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처럼 선비는 역사적 개념이자 승화된 정신적 개념이기도 하다.

선비의 일상

선비들은 학문적 수련과 함께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퇴계집退溪集』 언행록에 따르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선비 이황李滉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서실書室에 나가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앉아 온종일 책을 읽다가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혹은 시를 읊조리기도 해서 세속의 좋아하는 바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듯 선비들은 독서와 정좌靜坐로 이상적 인간상인 성인과 군자에 이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또한 시서화와 음악을 통해 심성을 닦는데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선비들의 거처는 사랑채였다. 사랑舍廊은 조선 사대부의 서재이자 생활과 수양 공간이었다. 조선 5백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사랑 공간이 존재하였고, 기능도

확장되었으며, 또 후기에는 규모가 커지고 장식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선비들이 거주했던 공간으로서 또 유교적 이념의 실천자로서 선비정신이 깔려 있다. 공간을 꾸미는 데에 그러한 철학이 구현되었다. 사랑은 곧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공간적 표현이다.

선비의 기호와 문방구

조선 선비들은 검박한 삶을 숭상하고 추구하면서, 이러한 덕목과 미의식에 맞추어 자신들의 공간의 규모를



난초 무늬 필통 | 白磁靑畫蘭草文筆筒 | 조선 19세기
높이 12.3cm | 1975년 박병래 기증



▲ 연봉 모양 연적 | 白磁蓮峯形硯滴
조선 17세기 | 높이 5.4cm

◀ 산수 매화 대나무 파초 무늬 연적
白磁靑畫山水梅竹芭蕉文四角硯滴
조선 19세기 | 높이 6.1cm
1999년 구입



금강산 모양 연적 | 白磁靑畫銅彩山形硯滴
조선 19세기 | 높이 19.0cm

정하고, 문방가구와 같은 기물들을 배치하였다. 사랑의 내부 기물들도 단순하고 기품 있는 문방가구와 소품들로 꾸며졌다. 이 가운데 완상과 함께 손 안에서 선비들에게 사랑받은 것은 문방구였다. 연적, 지통, 필통, 필가, 필격, 필세, 묵호 등이었다. 주로 도자기로 만들어진 이것은 절제된 아취와 문인적 품격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청화백자가 수용되면서 조금씩 화려하게 바뀌어 갔다.

팔각이나 원통형 백자필통과 지통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등의 사군자가 그려졌다. 아울러 산수문, 괴석초화문 등도 그려졌다. 사군자는 네 식물의 특성을 덕과 학식을 갖춘 사람인 군자에 비유한 것이다. 산수문과 시는 시서화를 중시하는 교양을 드러낸 것이며 괴석초화문은 돌의 불변하는 성질을 귀하게 여긴 것이다. 이러한 그림이 채택된 것은 모두 선비적인 기호에서 비롯된 것이라 믿어진다. 이러한 문양은 사각 연적에도 그려졌다.

사각 연적 외에도 다양한 연적이 선비들에게 사랑받았다. 잉어, 해태, 두꺼비, 연봉, 복숭아, 감, 금강산, 궤, 부채, 가옥 등 갖가지 형상을 본뜬 상형연적象形硯滴이 있다. 상형연적은 자연물이나 인공물을 본뜬 것이

기도 하지만, 상징성을 담고 있는 것도 있어서 선비의 취향을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잉어 모양 연적은 등용문고사登龍門古事에서 온 것으로 ‘입신출세立身出世’를 뜻한다. 선비에게 ‘입신출세’란 뜻을 만나 지위에 오르면 천하를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연봉 모양 연적은 연꽃봉오리를 본뜬 것이다. 선비들이 사랑했던 연꽃은 군자로 일컬어지는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의 상징형이다. 연꽃을 군자의 상징형으로 인식한 것은 송의 주돈이가 『애련설愛蓮說』에서 “국화는 은일이요,...연꽃은 군자다”라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연은 더러운 뻘에서 자라지만 그에 물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산 모양 연적은 금강산 모양을 본뜬 것이다. 금강산은 유학자들에게도 구도와 수련의 성지이다. 금강산 모양 연적을 사용함으로써 사랑방에서 금강산을 와유臥遊하며 동시에 완상玩賞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 상형연적 가운데에는 신선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복을 구하는 길상적인 모양도 있다. 이것은 선비들이 유교이념의 실천자이기도 하지만, 이를 근간으로 유불선의 다양한 철학과 사상도 흡수하는 지식인적 취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이인상 초상 李麟祥 肖像 | 작자모름 | 종이에 색
58.0×33.0cm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홍근 기증)

이인상의 묘처는
진함이 아니라 담담한 데에 있으며
무르익음이 아니라 생생함에 있다
오직 아는 자만이 이를 알리라
凌壺妙處 不在濃 而在乎澹
不在熟 而在乎生 唯知者知之

『凌壺筆帖』跋文 중에서

꽃꽂한 자태와 강단있는 조선 선비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

민길홍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금강산 구룡폭포를 그리면서 실제 정치와 일부러 닮지 않게 그렸고, 눈썹인 소나무를 그릴 때에는 파격적인 구도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조선의 화가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작품이 탄생하게 된다.

18세기 전반기에 태어나 담담한 문인화풍의 산수화를 주로 그렸던 화가 능호관凌壺觀 이인상李麟祥(1710~1760). 이규상李圭象(1727~1799)은 『일몽고一夢稿』에서 이인상의 그림과 글씨를 다음과 같이 높게 평하였다.

그의 그림은 보통 화가들의 좁은 오솔길을 훌쩍 뛰어넘어 곧바로 꽃꽂한 자태와 파리하면서도 강단있는 정신으로 화가의 상승별품의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인상 그림의 필획은 그윽한 맛이 있는 가운데 깎아지른 듯 삼엄하며, 화법이 독특하면서도 막힘없이 산뜻하고 시원하여 고급 화가들의 뛰어난 경지를 넘나들고 있다. 그의 전서篆書와 팔분八分の 획은 비록 옛날의 명수라 하더라도 그와 대적할 만한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서화에 있어서 문자향文字香과 서권기書券氣를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우면서 기준이 높아 당대 서화가들을 좀처럼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도 이인상의 예술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옹방강翁方綱(1733~1818)에게 이인상의 그림을 선물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인상의 자는 원령元靈이며 호는 능호관凌壺觀, 보산자寶山子, 중강침부鐘岡蟄夫 등을 두루 사용하였다. 본관은 전주이씨 밀성군파로 이 집안은 당대의 명문 중에 명문이었다. 특히 고조부인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1585~1657) 이후 이 집안은 크게 번성하였다. 그러나 이인상의 증조부가 서자였기 때문에 이인상 역시 서출을 면할 수

없었다. 아홉 살 되던 해에 아버지를 여의고, 전각으로 이름이 높았던 삼촌 이최지李最之(1696~1774) 아래에서 학문의 길을 갔다. 이인상의 성품은 매우 꽃꽂하고 강직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됨이 강직하고 곧아서 남과 마음이 잘 맞지 않았으며, “아침해서 세상에 출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사람과 말할 때는 씩씩하고 굳세며 엄하고 곧아서 법도를 바로 지키니 사람들마다 경복했다”고 가까운 벗이었던 황경원黃景源(1709~1787)은 이인상의 묘지명에서 밝히고 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여 사대부들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며, 관찰사와 다

이인상은 소나무를 많이 그렸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추운 겨울에 독야청청하여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기 때문에 화가들이 자주 그림의 소재로 선택하였다. 이인상은 눈이 제법 많이 쌓인 설송의 모습을 개성 있고 분위기가 있게 그려내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소나무 두 그루가 만드



설송도 雪松圖 | 종이에 먹 | 117.0×53.0cm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는 구도이다. 꽃꽂이 서 있는 소나무와 오른쪽으로 90도로 휘어지는 소나무는 서로 교차하며 과감하고 파격적인 구도를 만들고 있다. 관람자의 눈앞으로 바짝 당겨져 소나무 윗부분이 화면 위로 벗어나 버렸다. 가만히 보니, 꽃꽂한 소나무는 화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서 있다. 살짝 옆으로 비껴나면서 오른쪽 공간에 여유가 생기고 휘어지는 소나무가 화면 오른쪽 여백에 가지를 마음껏 내릴 수 있었다.

소나무의 상징성인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꽃꽂이 서 있는 나무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그 뒤에 휘어진 소나무는 안정적 구도를 위한 장치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쓸쓸

하고 슬픈 비감悲感의 정서를 전달한다. 이인상은 서얼 출신이었기 때문에 곧은 행실과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도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지 못하였고, 올곧은 성품 때문에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윗사람과 많이 부딪쳤다.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평생의 소망이었던 은거생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이인상의 평생을 보면, 곧은 성품, 뛰어난 학문, 명나라에 대한 의리, 선비의 지조, 은거에의 동경 등의 기본성향은 꽃꽂이 서 있는 소나무와 비견된다. 그러나 신분의 제약, 유민 의식, 윗사람과의 갈등, 가난과 질병 등은 구부러져 휘어진 소나무에 담겨져 있다. 이인상의 설송도는 이러한 이인상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향점은 있으되 좌절된 현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조와 절개를 잃지 않으려는 신조. 그것이 설송도가 말하는 뜻일 것이다.

벽하碧下 조주승趙周昇

박철상 | 문학박사 한국문화연구학회 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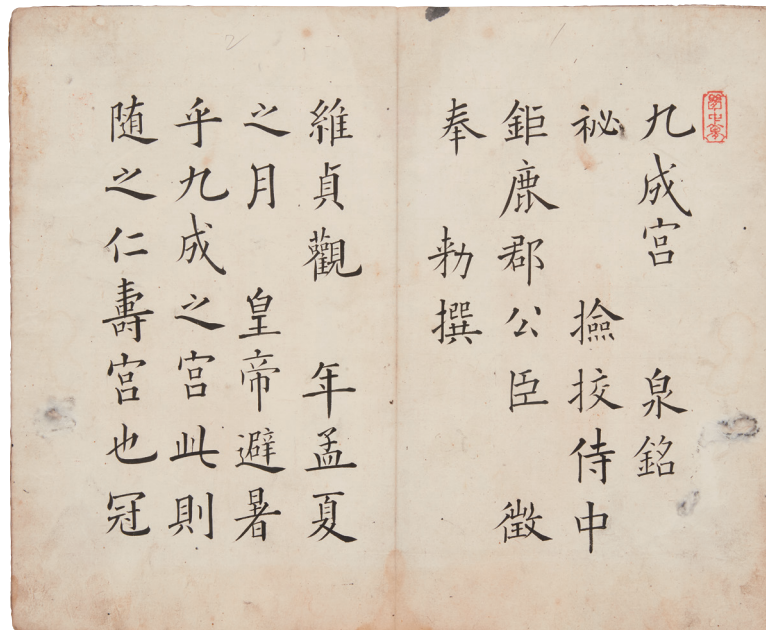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1841~1910)의 제자 이당彝堂 조병헌趙秉憲(1876~1938)은 1923년에 쓴 한 편지에서 전주 서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전주에는 원래 서화書畵에 대한 안목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기에 벽하碧下, 석정石亭 두 선생께서 한 시대의 문을 크게 열었으니, 이후로는 과연 절대的高手가 있게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전주라는 도시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다. 전주에는 본래 서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벽하碧下 조주승趙周昇(1854~1903)과 석정 이정직 두 분이 출현하여 한 시대 서화의 문을 크게 열었다. 두 사람 모두 김제출신이었지만 전주와 김제를 오가며 활동했던 분들이다. 이정직은 서화로 이름 드러내길 좋아하지 않았지만, 조주승은 글씨와 그림으로 명성을 날렸다. 이 때문에 오세창은 『근역서화징』에서 이정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주승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글씨를 공부했는데, 안진경의 서체를 배웠으며 대나무를 잘 그렸다.”고 했던 것이다.

죽보의 기록에 따르면 조주승의 본관은 김제金堤이고 초명은 재홍在泓, 자는 장일章日, 호는 벽하碧下이다. 다만 1918년에 간행된 『김제군지』〈필원筆苑〉에는 벽하의 이름이 조재갑趙在甲으로 실려 있다. 이정직의 제자로서 조수승과 교분이 깊었던 유재裕齋 송기면宋基冕(1882~1956)은 〈행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대체로 30~40년 동안 해서와 행서의 오묘한 경지에 이르렀고, 왕헌지의 〈낙신부洛神賦〉와 안진경의 〈가묘비家廟碑〉에 대해서 더욱 절묘한 경지에 이르렀다. 공은 서예에 있어 석정 이정직 선생에게서 배운 바 많지만 그 조예와 운색에 있어서 는 석정 선생도 따라갈 수 없다. 공은 또한 묵죽墨竹을 잘 그려 이에 대해 논하는 사람들은 '자하紫霞 신위申緯에 비할 수 있는데, 그 용필用筆과 정봉正鋒은 자하도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노래와 거문고에도 능하여 음률에 정통한 사람들도 모두 그를 따라가지 어려울 정도였다. 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공을 사절四絶이라 하였다.



구성궁예천명첩九成宮醴泉銘帖 | 조주승 | 19세기 말~20세기 초 종이에 먹 | 32.4×20.3cm | 수경실 소장



『송재진적』에 실린 김제향교의 편액 〈명륜당明倫堂〉. 송재 송일종이 썼다.

조주승이 당시 사절四絶로 불린 내력을 서술하고 있다. 글씨와 그림, 그리고 노래와 거문고까지 능했기 때문이었다. 그림에서는 묵죽墨竹에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자하 신위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글씨는 이정직에게 배웠지만 이정직보다 뛰어난 면도 있었다.

1925년 봄, 최남선崔南善은 석전石顚 박한영朴漢永(1870~1948)과 함께 전주를 찾았다. 이에 앞서 그는 완주군 구이면 와동瓦洞에 살고 있던 심농心農 조기석趙沂錫(1876~1935)을 방문하였다. 길을 좀 돌아가긴 했지만 박한영이 조기석과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그를 만나러 갔던 것이다. 최남선은 『심춘순례尋春巡禮』에서 이에 관한 기록을 남겼는데,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씨李氏 석정石亭과 함께 ‘석석벽죽石石碧竹’이란 말을 들었던 벽하碧下 조주승趙周昇씨의 만아들인데, 가학家學을 잘 계승하여 글씨로나 대 그림으로나 그 아버지에 뒤지지 않는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벽하의 특장特長인 해서의 오묘한 솜씨를 드러낸 〈난정서蘭亭序〉, 〈낙신부〉, 〈가묘비〉 등의 서첩에서는 공력 있는 그 글씨의 뛰어난에 감탄하였지만, 문장과 글씨가 모두 정묘한 향수옹香壽翁, 정학교의 제발題跋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랐다.

당시 조주승은 이정직과 함께 ‘석석벽죽石石碧竹’으로 불렸다는 것이다. 석정은 돌 그림을 잘 그렸고, 벽하는 대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부친의 맥을 잘 잇고 있던 조기석은 부친의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그 중

에는 〈난정서〉, 〈낙신부〉, 〈가묘비〉 등이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최남선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정학교의 발문이 달린 서첩이었다. 그것은 바로 〈구성궁예천명九成宮醴泉銘〉이었다. 그 서첩이 현전하고 있는데, 정학교의 글이 허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몽인夢人 정학교丁鶴喬(1832~1914)의 발문은 다음과 같다.

明明나라 성조成祖, 영락제永樂帝 때 외국에서 사신을 보내 당나라 구공歐公의 도룡비屠龍碑를 요청했다. 바다 선박이 태풍에 피해를 입는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였는데, 바로 구양순의 〈예천명醴泉銘〉이다. 글을 위정공魏鄭公, 위징魏徵이 지었으니, 대개 소설에 나오는 위징이 ‘꿈에 경하涇河 용왕龍王을 참수했다는 말’을 따랐을 뿐이다.

벽하碧下의 임본臨本은 여산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 주어 외국 사신의 청에 부응할 만하니 참으로 진기하구나.

〈구성궁예천명〉은 당나라 구양순이 글씨를 썼고, 글은 당나라 태종 때의 명재상인 위징魏徵(580~643)이 지었다. 『서유기西遊記』에는 위징이 당태종의 신하이자 옥황상제의 명을 받드는 인물로 나오는데, 위징은 꿈에서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죄를 지은 경하涇河의 용왕龍王을 참수한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 이 비석을 도룡비屠龍碑라 했던 것이다. 도룡屠龍은 용을 죽였다는 의미이다. 용을 죽인 위징의 신비한 힘이 담긴 비석을 자신의 나라에 세움으로써 태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겼던 용왕의 힘을 잠재우려 했던 것이다. 정학교가 이 이야기를 쓴 것은 바로 벽하가 임서한 〈예천명〉의 솜씨가 원본이나

아름다운 농업유산, 설보雪湫 이야기

김철배 | 임실군청 학예연구사

조창손수 설보비 祖創孫修 雪湫碑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덕치면사무소를 지나 약 200m 정도 덕치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면 30번 국도변에 설보비雪湫碑가 서 있다. 비석은 가로 58cm, 두께 46cm, 높이 88cm 크기이다. 이것은 운학雲壑 조평趙平이 쌓은 설보雪湫(서리보)를 기념하여 1879년에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비문은 송사松沙 기우만壽宇萬(1846~1916)이 지은 것이다. 설보비에는 조평의 가계 및 설보 수축이야기가 새겨져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보비명雪湫碑銘¹

보湫는 임실현 덕치마을 앞 큰 뜰에 있다. 이 보 때문에 지어먹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할 정도이다. 갑술(1634)과 병자년(1636), 그리고 병자년을 지나 4년이 되는 기묘(1639)이었다. 주민들이 모두 말하기를, “우리들 전부가 대홍년[大無]에 살 길을 얻는 것은 오직 누군가 못의 물로 내려주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 일을 맡을 지 알지 못할 뿐이었다. 돌을 채취하여 그 자취가 드러났으니 보湫는 대개 운학雲壑 조평趙平이 축조한 것이다. 옛날 여기에 보가 없을 때에는 큰 들판이 가이 천경千頃이나 되어도 물 대는 것을 한탄만 하면서 오랫동안 갈아 먹지 못하였다. 공이 여러 번 물을 끌어 도랑을 내자고 말하였으나 쉬운 일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일정이 늦어졌다. 마침 기묘년(1639) 봄 춘분날 밤에 애석崖石 사이로 눈자취[雪痕]를 따라가니 가이 성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내 여러 사람들이 이 일을 따라 힘을 다하니 하늘이 일을 낸 것 같았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공공의 정성에 감복함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로 인하여 설보雪湫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다.

1 설보비명雪湫碑銘은 『송사선생문집』(1931) 제25권에 세마보비洗馬湫碑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회문리 설보비 回文里 設湫碑 | 기우만奇宇萬(1846~1916) 높이 122.0cm | 조선 1897년 | 덕치면 회문리

다름없어 <도롱비>를 요청했던 외국사신의 요청에 부응할만한 솜씨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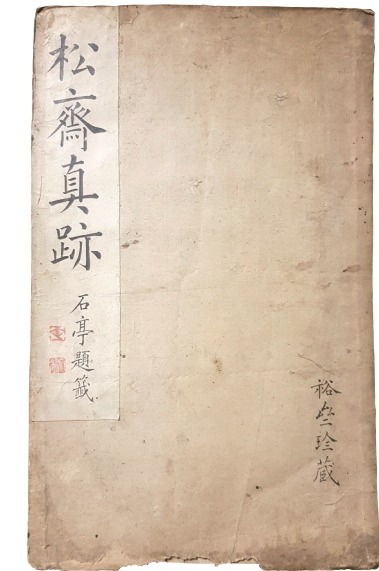
조주승은 50세라는 길지 않은 삶을 살았다. 매천梅泉 황현黃玹은 조주승의 부고를 받고 이정직에게 편지를 썼다.

벽하의 부고가 오니 사람으로 하여금 기운이 빠지게 합니다.
생각해보니 선생은 이제부터 알아줄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절현絕絃]
서화계의 액운이 어찌다 여기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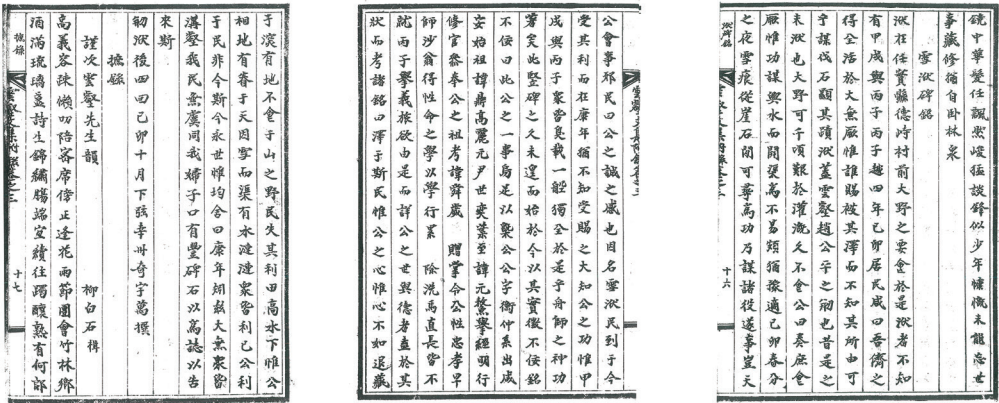
백아伯牙와 종자기鍾子期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 자신의 연주를 제대로 이해하는 유일한 친구였다. 종자가 죽자 백아는 거문고를 부수고 줄을 끊었다고 한다. 자신의 음악을 알아주던 유일한 친구가 죽었으니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황현은 벽하와 석정을 종자기와 백아에 비유한 것이다. 벽하의 죽음으로 석정은 자신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을 잃은 것이었다. 매천은 시를 지어 벽하의 죽음을 애도했다.

송송재 뒤에 이창암이 있고 宋松齋後李蒼岩
솔밭처럼 벽하까지 셋이 됐으니 鼎足參差碧下三
우리나라 천년 서단 논정論定해보면 論定千秋東筆苑
응당 우리 호남 쓸쓸하지 않으리라 未應寂寞我湖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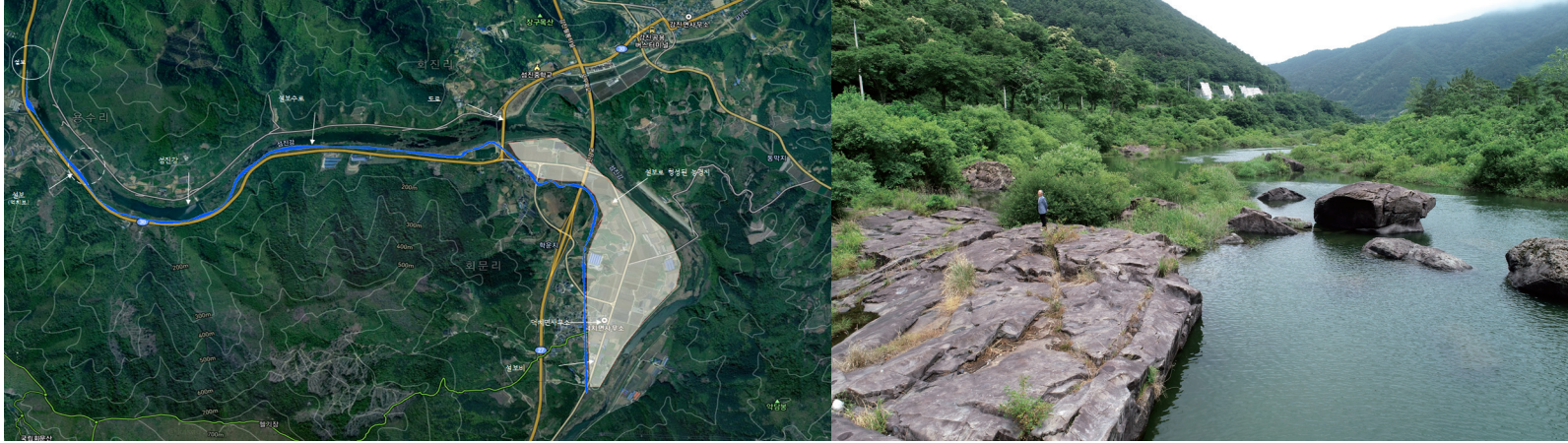
황현이 쓴 <곡조벽하哭趙碧下>이다. 황현은 호남의 서예가 세 사람을 들고 있다. 송재松齋 송일종宋日中(1632~1717), 창암蒼巖 이삼만李三晩(1770~1847) 그리고 벽하 조주승이다. 우리나라 천년의 서예계를 논정해보면 바로 이 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호남湖南이 쓸쓸하지 않게 됐다는 말이다. 그야말로 극찬이다. 그런 만큼 벽하의 글씨는 여러 사찰과 관청의 편액으로 남아 전하고 있다. 전주 남고사南古寺의 <관성묘關聖廟>와 속리산 법주사의 <호서제일가람湖西第一伽藍>은 실물이 전하고 있으며, 김제 관아에 걸렸던 <징벽루澄碧樓>는 탁본이 전하고 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편액과 글씨들이 제법 전하고 있다. 모두가 벽하의 명성에 걸 맞는 글씨들이다. 조병헌의 말처럼 벽하와 석정 사후, 전주에는 그야말로 서화의 고수들이 즐비했다. 바로 두 사람이 문을 크게 만들어준 덕분이었다.



- ①, ② 묵죽도 墨竹圖 | 조주승 | 19세기 말~20세기 초
죽자 | 종이에 먹 | 180.0×43.7cm(좌)
179.5×44.4cm(우)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③ 『송재진적』. 이정직의 친필 제침이 있는 송일종의 글씨 탁본첩. 여기에는 송일종의 글씨 탁본들이 장첩되어 있다. 한 때 유재 송기면이 소장했던 책이다.



설보비명雪汰碑銘, 『송사선생문집』(1931)



설보雪汰와 그 동리구역

같은 자리에는 2기의 비석이 더 서 있는데, 하나는 ‘청경 조병용 설보중창불망비[靑耕趙公柄鏞重創雪汰不忘碑]’(1912)이고 또 하나는 ‘참봉 진재석 시혜불망비[晉參奉晉在氏施惠不忘碑]²⁾이다.

조병용趙柄鏞(1836~1907)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조병용은 덕치면 일대에서 한학과 의학에 조예가 있었다고 하는데, 임실 입향조인 함안조씨 운학雲壑 조평趙平(1569~1647)의 8대손이자 1950년 간행된 『염재야록念齋野錄』을 쓴 조희제趙熙濟의 아버지라는 정도이다. 조희제는 일본강점기에 한말 비사와 애국 투사들의 행적을 기록하였는데 이 일로 옥고를 치렀으며, 2018년 1월에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청경 조병용 설보중창불망비〉에는 그의 나이 43세를 전후한 1879년경 선대 조평 선생이 수축한 설보雪汰를 다시 중창한 사실을 전하고 있다. ‘조창손수祖創孫修’, 즉 선조가 세운 것을 자손이 보수한 것이다.

1874년부터 시작된 가뭄의 기운은 간헐적이고 지속적으로 1894년까지 이어졌는데 이 기간 중 1876년 가뭄과 1888년 무자년 가뭄이 특히 심하였다.³⁾ 1879년이면 1876년 병자년 가뭄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눈에 보이듯 선하다. 이곳 저곳에 올라가 기우제祈雨祭

로서 이를 극복하려고 했던 여타의 행태보다 매우 적극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선대 조평 선생의 설보를 세운 정신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설보雪汰

설보雪汰가 위치한 곳은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 가리점 마을 앞 섬진강 줄기에 있으며, 지금도 그 자취가 완연하다. 섬진강은 데미샘에서 발원하여 광양까지 약 212km를 흐르는 강으로 용수리에서부터 덕치면 회문리, 장암리를 지나면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시인의 마을 진퇴에 이르고, 조금 더 하류로 내려가면 천담, 구담 마을을 돌아 순창으로 이어진다.

설보비가 있는 덕치면 회문리와는 약 6km정도 떨어져 있는 상류이다. 조선시대 농업용수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보를 막아 물을 가두는 것인데, 비슷한 용어로 제언堤堰은 계곡을 막아 물을 저장하는 것이고, 바닷가에서는 제방인 언堰을 만들어 바닷물을 막고 상류의 물을 담는 방식을 사용한다. 섬진강 212km 중에 임실땅에 64km를 흐를 정도로 강의 선형은 구불구불하며, 섬진강 곳곳의 충적지에 사람들이 기대어 살고 있는 실정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지만 구릉 아

래쪽으로 흘러나가는 섬진강 물을 올려 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회문리 앞뜰보다 높은 지형까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보를 막고 도랑을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그처럼 힘든 작업을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가리점 마을 앞 설보터는 이 근동에서 섬진강 강폭이 가장 좁은 곳이기도 하지만, 강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중간 중간에 큰 바위가 놓여 있는 형국이어서 보汰를 막는 천혜의 지형이다. 이 보로부터 약 6km 정도의 도수로導水路를 설치하여야 비로소 회문리 앞뜰에 관개할 수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농지가 약 천경千頃, 약 664,000㎡ 정도이며 알기 쉽게 700마지기 정도라고 한다.

운학雲壑 조평趙平

1634년(인조 12년)부터 1639년(인조 17)까지 약 6년간 진행된 설보 수축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운학 조평이다. 1639년이면 조평의 나이 71세였으며, 『운학집』의 연보에 의하면, ‘是年春分之夜 一線微雪點點印痕於崖石之間 先生遂與村人立標通溝 故後人謂之雪汰’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는 ‘이 해 춘분날 밤에 한 가닥 아름다운 눈발이 모난 돌 사이로 점점點點이 흔적[印痕]이 생기자 선생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표식을 세우고 도랑을 뚫었다. 그러므로 후세 사람들이 이르기를 설보라 하였다’라는 뜻이다.

조평趙平(1569~1647)은 본관은 함안이고, 자는 형중

衡仲, 호는 운학雲壑이다. 1569년 함안군 두곡촌杜谷村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조순세趙舜歲, 어머니는 창녕조씨이다. 생육신으로 함안의 백이산 아래에 은거하였던 어계漁溪 조려趙旅의 후손이다. 어려서 할아버지 조원오에게 배웠으며, 한강寒岡 정구鄭述,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인門人이다. 1609년 진사시에 입격하였고, 1624년(인조 2년) 학행學行으로 천거薦擧되어 창릉참봉昌陵參奉·황산찰방黃山察訪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627년(인조 5년)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를 지냈다.

그는 1592년 6월 임진왜란 당시 함안을 떠나 임실로 들어왔는데, 왜 임실을 선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다만 임실을 신안리와 청웅면 압포리에 걸쳐 있는 백이산伯夷山은 조선 전기 생육신 조려 선생이 함안의 백이산으로 들어간 것처럼 돈학 송경원 선생이 낙향하여 은거한 곳이다. 그러니까 함안조씨는 백이산 아래로 두 번 들어간 것이다.

어쨌거나 조평 선생은 1625년 이괄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의병義兵을 일으켰으며 이 공으로 공신에 책봉되었다. 또한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도 호남에서 창의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적극적인 구국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그가 1634년부터 진행된 회문리 일대의 염원, 즉 물을 끌어들이는 작업에 적극 관여하여 1639년 설보의 완성을 통해 애민愛民을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올곧은 선비의 모습을 본다.

2 진재석이라는 이름은 임실의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죽림암 탕화나 증기사 탕화, 그리고 상이암 산신각 건립 암각서, 또는 기타 말재斗峙)나 대곡리 등지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불망비가 그것이다. 진재석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설보비 옆에 서 있는 이 시혜불망비는 조병용 선생이 당시 설보를 중수할 때 먹을 것을 제공한 등 이 거대한 공사를 하는 동안 물심物心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김철배, 「전라도 부안 土族 奇幸鉉의 『鳴齋日記』과 19세기 후반기 부안의 경제사정, 『전북사학』 46, 2015.

새롭게 여는 국립전주박물관 선비문화실

정대영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조선 선비문화를 중심으로 박물관 특성화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특별전과 교육행사, 강연회 등을 개최해 왔다. 하지만 옛 선비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박물관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전시실이 관람객에게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2020년 8월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본관 1층에 ‘선비문화실’을 건립 중에 있다.

2019년에는 선비문화실에 대한 세부 계획안과 소장품 조사, 진열장을 비롯한 시설 공사를 진행, 12월에는 전시실의 기초공사와 진열장 제작이 완료되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선비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의 조사 및 수집과 함께 아름다운 선비문화실 제작을 위한 그래픽, 영상제작 작업 및 5G 시대에 발맞추어 실감형 체험공간의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선비를 다루는 전시실이라고 해서 정적인 공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비문화실은 오감五感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선비의 공간을 마련하여 유물 관람과 체험, 영상관람 등을 통해 옛 선비에 대한 이해와 거리감을 줄여가는 공간으로 꾸며질 것이다.

전시실은 총 4부로 구성되어 관람객을 맞이하게 된

다. 먼저 프롤로그에서는 선비의 정신과 생활문화, 이에 관한 동기 유발의 길라잡이가 제시된다. 다음으로 1부에서는 선비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면서 ‘나눔’의 정신을 살펴볼 것이다. 2부에는 선비의 생활과 일상을 통해 ‘배려’의 정신을 살펴보고 선비의 편지와 일기의 내용 속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터치 반응형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3부는 ‘선비와 자연’이라는 주제의 체험 공간으로 서원의 모습과 사계절의 변화, 선비의 여행에 대한 주제로 최신기술을 도입하고 실감형 콘텐츠를 구현하여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것이다. 마지막 4부는 오늘날 이어지는 선비정신을 주제로 ‘섬김’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공간으로 마련하였다.

선비는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고고한 위인이거나, 고리타분한 옛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언을 서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며, 지식을 사회에 실천하고 베풀었던 그들의 정신은 조선 500년을 지탱하는 정신적인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새로 건립되는 선비문화실에서는 선비의 진정한 면모를 살펴보는 공간이 되어 옛 사람과 지금의 우리를 함께 비교해 보는 삶과 사색의 공간이 되기를 희망한다.



“겸손, 배려, 나눔”을 배우는 박물관 서당

이기현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겸손한 사람은 함께하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배려는 더 큰 행복을 가지고 온다. 작은 나눔도 주변을 따뜻하게 만든다. 조선의 선비,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은 평생토록 자신을 낮추고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이황의 일상을 따라가 보면 ‘겸손과 배려’를 만나고, 사람사이의 정을 느끼게 된다. 국립전주박물관 서당書堂에서는 ‘겸손, 배려, 나눔’이라는 따뜻한 울림을 담은 ‘조선 선비문화’를 알리고자 한다.

박물관 서당에서는 출생부터 성장까지 통과례通過儀禮와 함께하는 체계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전통교육에는 지식의 차원뿐 아니라 심성을 끊임없이 바로잡는 인성교육이 중심에 있었다. 단순한 지식 제공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예절, 생활습관을 중요시했던 옛 선비들의 교육처럼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어린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대상	분류	주제
태아 (성인)	선비 태교	선비여성유학자의 태교 관련 책 『태교신기』 읽기
		태교 음악과 인성
		전통태교와 뉴럴네트워크 등
		행복한 가족과 건강한 아이의 탄생
영유아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엄마아빠와 함께 읽는 선비이야기
어린이	밥상머리교육	어머니와 함께 읽는 『동몽선습』
	놀이	극놀이: 2020년 선비는 누구일까요?
청소년	성인식	뜻을 바르게 세우는 법: 향사례鄕射禮(활쏘기)
성인	학습	선비문화 아카데미, 한국화 교실
전체	예절	예절교실: 사감과 배려
		다도茶道와 여유



선비문화아카데미 심화과정

정대영 |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선비문화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회원제로 진행된 선비문화 아카데미는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180명이 등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강연이 상반기에 끝난 후 많은 분들에게 이와 같이 수준 높은 강연이 하반기에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의견을 받게 되었다. 국립전주박물관의 입장에서 특성화 주제인 조선 선비문화에 대한 관심도의 지속을 위하여 하반기 연계강좌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대중에게 더욱 심도 있는 강연을 제공함으로써 선비문화에 대한 이해와 깊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선비문화 심화강좌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선비문화 심화강좌는 2019년 10월부터 총 4회로 진행하였다. 지난 상반기 선비문화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격주가 아닌 매주 강연 진행과 금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강연을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의견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번 강연은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2시간에 걸쳐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심화강좌라는 제목에 걸맞게 각 분야에서 선비에 대한 최고의 강연을 할 수 있는 강연자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0월 31일 첫 강연의 시작은 이배용 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이사장의 ‘인성교육의 본산, 한국의 서원’이라는 주제로 출발하였다. 올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9개 서원의 가치와 함께 서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강연은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선비의 음식문화’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우리 음식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기존 연구를 통해 선비의 음식문화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세 번째 강의는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실장의 ‘고문서로 살펴보는 선비문화’였다. 고문서는 한자와 초서로 기록된 어려운 옛 문서라는 선입견이 있어 왔지만 안승준 선생의 쉽고 재미있는 설명과 여러 사료를 술술 번역하는 모습을 통해 최고의 고문서 연구자의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강연은 김미라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진행한 ‘조선의 밥상머리 교육’이었다. 옛 말에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가고 집안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 하였다. 그만큼 옛 선비들은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에 힘써 왔다고 알려져 있다. 김미라 교수는 다양한 사례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옛 사람들의 어린이 교육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세 번째 강의는 안승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실장의 ‘고문서로 살펴보는 선비문화’였다. 고문서는 한자와 초서로 기록된 어려운 옛 문서라는 선입견이 있어 왔지만 안승준 선생의 쉽고 재미있는 설명과 여러 사료를 술술 번역하는 모습을 통해 최고의 고문서 연구자의 깊이 있는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강연은 김미라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진행한 ‘조선의 밥상머리 교육’이었다. 옛 말에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가고 집안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 하였다. 그만큼 옛 선비들은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에 힘써 왔다고 알려져 있다. 김미라 교수는 다양한 사례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옛 사람들의 어린이 교육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강을 해주었던 선생님들과 그러한 강연을 경청해주신 참석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비문화 아카데미는 선비에 대한 다양한 주제와 재미있는 강연으로 2020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의 발전적 업무협약 체결

국립전주박물관은 ‘조선 선비문화’를 주제로 브랜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계 특별전과 교육·문화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말에는 조선 선비문화 주제에 맞추어 어린이박물관이 개선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는 선비문화실을 신설하여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와 체결한 업무 협약은 향후 국립전주박물관의 전시와 교육·문화행사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주박물관과 여러 기관들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콘텐츠 개발과 연구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의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순기능 역할 확산에 노력할 것이다.

년도	날짜	기관명	내용
2018년	3.15.	전주시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핵심자원인 전주 전통한지의 보존과 계승, 활용을 위한 협약 체결
	3.23.	대가야박물관	특별전시 관련 사업 수행의 상호 호혜적 업무 협력 체계 구축
	4.25.	완주문화재단	완주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및 활성화 목적
	5.1.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국립광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전라도 천년기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호남권 지자체와 국립박물관 간 상호 호혜적 업무 협력 체계 구축
	6.8.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실크로드 학술교류 사업 협력
	11.7.	완주군	‘전북의 역사문화전13’ 완주 특별전 ‘오로지 오롯한 고을 완주’와 향후 건립 추진 예정인 완주군박물관(가칭) 건립과 관련된 업무 협력 도모
	11.7.	한국국학진흥원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조선선비문화’ 학술연구협력을 위한 협약
2019년	4.3.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국립전주박물관회	발달장애인의 예술적 능력 함양과 자질을 육성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 협력
	6.5.	전라북도관광협회	전라북도 전통문화유산 홍보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6.7.	(재)한국의 서원 통합보존관리단 (現 (재)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조선 선비문화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을 통한 연구·전시·조사를 위하여 유기적 협력을 추진
	6.19.	전주지방법원	전라북도 전통문화 활성화와 인문학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
	6.21.	영주시	조선 선비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7.18.	(사)전주부채문화관	전통문화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8.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조선 선비문화의 활성화 및 상호 협력 구축
	9.27.	국립민속국악원 전라북도국악원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국악공연을 통한 정책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상호 협약
	10.17.	(사)고창농악보존회	전라북도 전통문화유산 교육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12.1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행사 및 공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소외계층의 교육·문화 향유권을 지원하며 시설 대관에 협조
	12.18.	광주국악방송	한국전통음악과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구축하고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

국립전주박물관의 신명나는 문화행사

김성용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운영과 주무관



태권도 공연



달집전래동화 뮤지컬 - 나와라 뚝딱! 이야기보따리(4월)



빤에로 풍선 만들기 행사

국립전주박물관은 '야간 개장'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공연, 체험, 영화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계기별 행사(설·대보름맞이 문화축전, 5월5일 어린이 축제, 문화재 그리기대회, 한가위 축제)를 주최하여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이러한 자체 행사와 함께 지역 내 기관들과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행사 유치, 공동 주최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의 국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만들기 체험 행사



달집태우기



팔씨름 대회



국악공연 - 국립민속국악원



김장 담그기 체험(11월)



물총축제(8월)



풍등날리기(8월)

ON

조선 선비문화

Joseon Seonbi Culture ON
Jeonju National Museum Magazine

Vol 2020. 01

'온'은 '전체나 전부'의 뜻을 지닌 순우리말입니다.
'모두'라는 뜻도 있어 박물관을 사랑하는 모두의 잡지라는
의미와 全州의 수의 (온전 전)에 해당하며, 한자로는 따뜻할 溫,
평온할 穩, 쌓을 蘊을 포함한 On은 (거리적 시간적으로)
'진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